

진도 VTS 왜 세월호 변침만 통제 안했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사고 전 진도해역에 무슨 일이...

다른 배와는 수시 교신...세월호는 신고 받고 첫 교신 어민 "사고 당시 현장 대형 상선 3~4척 목격" 주장도

승객과 선원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사고 직전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고 나서 균형을 잃고 결국 침몰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급선회를 왜 하게 됐는지 의혹은 사고 발생 몇새가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학적 항해 등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왜 갑자기 조류가 거칠기로 악명높은 '맹골수도'에 이르러 수차례 무리하게 방향을 바꾼 것일까. 그리고 이를 지켜봤을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이러한 세월호의 이상신호를 사전에 눈치채지 못했을까.

◇오전 8시부터 사고 발생까지 진도VTS의 상황=사고 발생 한참 전인

16일 오전 7시 당시 진도해역에는 수십여척의 선박이 운항중이었다. 진도 VTS는 이들 선박을 관제하며 작은 변화까지 모두 감지해내고 있었다. "○○호 귀선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어선이 확인됩니까?(07시14분)", "△△호 전방에 있는 어선 갯수 확인됩니까?(07시28분)" 어룡도를 통과해 목포로 가던 선박을 향해서는 "전방에 어선이 많네요, 진도대교로 가나요(07시37분)?"라고 주의를 주고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7시51분~7시58분에 제주도로 향하던 선박에는 "어선들이 횡단을 많이 합니다. 주의하세요. 현재 시정 괜찮나요?"라고 묻거나 "좌현에서 접근하는 어선이냐?"고 세심하게 주의를 주는 등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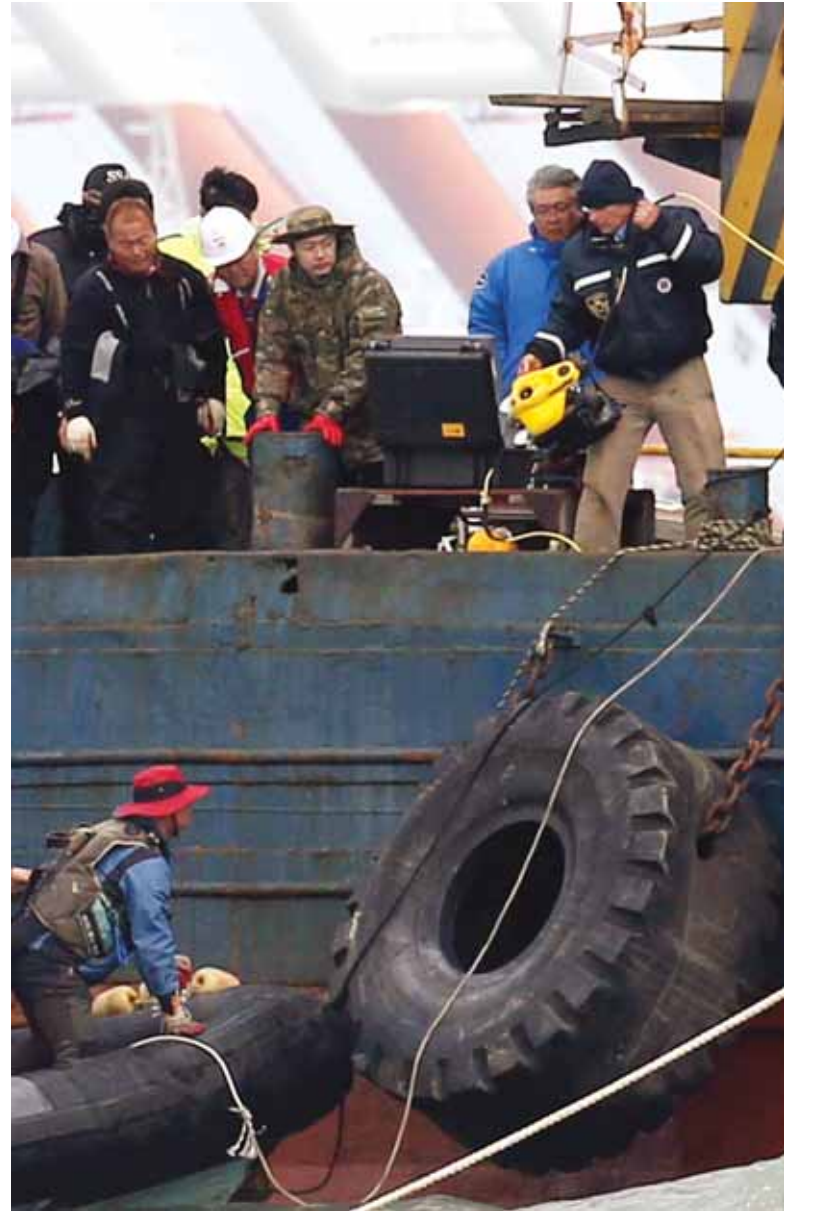
도 VTS는 진도 해역을 운항중이던 선박들의 흐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 연수생을 싣고 실습중이던 배,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 조업중이던 어선 등 수십여척의 운항은 순조롭게만 했다.

◇왜 세월호의 변침만 통제하지 않았나? = 평소처럼 진도 해역의 선박 관제를 담당하던 진도 VTS는 관할 구역에 운항하다 침몰 위기에 놓인 세월호가 사고 이전 수차례 변침을 하며 이상징후를 보였으나 별다른 교신이 없다가 세월호로부터 신고를 받은 이후야야 바빠 움직였다.

당국이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 VTS의 첫 교신 시간은 오전 9시07분. 교신 내용은 "진도 VTS, 세월호"로 세월호가 진도 VTS를 호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세월호, 여기 진도 VTS. 귀선 침몰 중입니까?"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겨우 절미하고 "귀선 침몰 중인가"라고 확인하는 것이 세월호를 향한 진도 VTS의 첫 메시지였다.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좌현 변침하

라, 어선 횡단 주의하라" 등 세심한 운항 지도를 해온 진도 VTS가 선원과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관할 해역을 운항중이었던, 게다가 국내에서 가장 조류가 거칠기로 악명높은 '맹골수도'에 접어들어 세월호에는 그토록 무관심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선실 내 부상자는 오전 8시30분 이상 느껴=부상자 윤길옥(50)씨에 따르면 윤씨는 친구 최재영(50)씨와 사고 당일 오전 8시30분께 매점에 있었다. 농담을 주고 받으며 컵라면에 물을 붓고 라면이 익기만을 기다릴 정도로 선실은 평화롭기만 했다. 컵라면을 눈앞으로 들어 면발이 익었다 확인하는 그 순간 배가 극심하게 기울었다. 최씨는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갑자기 기울어 들고 있던 라면 국물을 얼굴에 온통 뒤집어 쓴 뒤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컨테이너가 바다에 떠다니고 아수라장이었다"며 "뒤 눈 깜짝할 사이 있었던 일이라 갑자기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7년째인 21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미국 기술진이 '원격 조정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선회 前 선체 심각한 문제 발생 수습 모색?

선원들은 왜 조타실에 모여 있었나

20일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항로변경, 즉 변침이다. 조류가 빠른 맹골수도를 지나면서 감속하지 않은 채 급선회하다가 사고를 맞았다는 얘기가.

그러나 진행방향에서 100도나 틀어질 만큼 급선회한 이유와 이준석(68·선장)씨가 박모(여·25·3등 항해사)씨에게 운항을, 조모(55·조타수)씨에게 선박 지휘를 맡긴 뒤 자신은 침실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도대체 조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48분께 맹골수도에서 갑자기 서남쪽으로 급선회한 뒤 4분 뒤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튼 뒤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아예 선박을 맡기고 쉬고 있었거나 선체에 문제가 생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타실에서 잠시 나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체의 문제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최초 구조 요청 직후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여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대목이다.

법정부사고수습대책본부가 공개한 진도 VTS와 세월호와 교신 내용에서 세월호 교신자는 이날 오전 9시17분 "선원들도 브리지(조타실)에 모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선박직 승무원들이 세월호에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 모였지만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승객들을 뒤로 한 채 집단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은 전원 구조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선장이

추억의 술

지리산 야생녹차와 청학골 청정수가 빚어낸 신비로운 맛! 추억의 "삼학"이 만듭니다.

언제든 좋은 버킷으로

삼학양조(주) 지리산 최고봉의 청학골 지하 200m 백반석 암반수

직매장 운영주 및 대리점 모집 | "삼학" 과 함께할 참신한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상담전화 02)865-3301~2

